

Daily Update (일본)

지 수	현재가	대비	대비율(%)	날짜
NIKKEI 225	13,677.32	▲ (+463.77)	+3.51%	6/28
TOPIX Index (Tokyo)	1,133.84	▲ (+35.01)	+3.19%	6/28
USD/JPY	99.0499	▲ (+0.9050)	+0.9220%	22:40
EURO/JPY	129.4310	▲ (+1.6215)	+1.2687%	22:44

1. 전일 증시 동향

일본증시는 금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와 산업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함에 따라 크게 상승 마감되었다.

금일 닛케이 225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3.77P(3.51%) 상승한 13,677.32 로 거래를 마쳤고, 토픽스 지수는 35.01P(3.19%) 상승한 1,133.84 로 장을 마쳤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5 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 상승해 보합을 기록했지만, 이는 약 7 개월만에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치이다. 광공업생산과 소매판매 또한 전월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투자심리 개선에 보탬이 되었다.

또한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5 월 산업생산 지표도 전월 대비 2% 증가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이는 지난 2011 년 말 이후 처음으로 2%대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Resona Bank 의 이코노미스트인 구로세 고이치는 '일본 증시가 경제지표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투자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Daiwa SM Investment 의 투자전략가인 몬지 소이치로는 '그 동안 변동성 때문에 매수를 망설이던 투자자들이 경제지표 호전에 확신을 갖고 주식시장으로 복귀했다'고 전하며 이번 증시상승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 업종별 동향

외환시장에서 달러대비 엔화가치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중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도요타자동차(7203)는 1.53% 상승한 ¥5,990 엔에 거래되었고, 혼다자동차(7267)와 미쓰비시자동차(7211)도 각각 2.22%, 1.49% 상승한 ¥3,685 엔, ¥136 엔에 거래되었다.

수출비중이 큰 가전제품 및 소비재 관련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였고, 그 중 소니(6758)는 2.11% 상승해 ¥2,078 엔에 거래되었고 파나소닉(6752)도 6.69% 상승해 ¥797 엔에 거래되었다.

카메라 및 광학렌즈 생산업체인 캐논(7751)은 0.47% 상승한 ¥3,235 엔에 거래되었고 경쟁사인 니콘(7731)도 0.61% 상승해 ¥2,314 엔에 거래되었다.

부동산 관련 회사들은 전일 급등세를 이어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중 미쓰이부동산(8801)은 4.63% 상승한 ¥2,917 엔에 거래되었고, 스미토모부동산(8830)도 4.63% 상승해 ¥3,955 엔에 거래되었다.

일본의 3 대 금융지주회사들도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고, 그 중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8306)과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그룹(8316)은 각각 4.08%, 2.94% 상승한 ¥612 엔, ¥4,550 엔에 거래되었고, 미즈호 파이낸셜그룹(8411)도 4.57% 상승한 ¥206 엔에 거래되었다.

전력회사들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고, 그 중 도쿄전력(9501)은 0.39% 상승한 ¥513 엔에 거래되었고, 주부전력(9502)과 도호쿠전력(9506)도 각각 0.86%, 0.08% 상승한 ¥1,406 엔, ¥1,239 엔에 거래되었다.

3. 일본시황 특이사항

일본의 재무 관료들이 국가 부채로 예산감축을 원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용인 가능성이 낮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현 아베 정부의 내각 관료들은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정부지출 억제를 원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재정 긴축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 수립을 관장하는 재무성을 비롯한 내각 관료들은 아베 총리에게 정부지출 상한선 제한을 설득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언론은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부 지출 상한선에 대한 구상은 현재 논의 중이고 지출 인상이 인플레이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타협안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내달 21 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위 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